

영호남 시도지사들, 대선공약 반영 공동건의안 제출

지방분권형 개헌

자치단체, 지방정부로 격상

지방소비세 25%로 확대
4대 기초복지 사업비
100% 국비로 지원
대구~무주 고속도로
건설 등도 포함

~거제 남부내륙철도 조기착수를 건의했다.
또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국비보전과 남부권 초광역경제권 추진, 조선업 재도전 희망펀드 3,000억원 조성도 건의안에 담겼다.
영호남 시도지사는 "30년 만에 개헌이 논의되는 현 시점에서 국가발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과 영호남 발전을 위해 8개의 공동건의안이 각 당의 공약반영을 절실하게 요구했다.

특히 전북도에서도 국토 균형발전과 영호남의 교류활성화를 위해 대구~무주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건설을 공동 공약안건으로 제안했다.

또한, 송하진 지사는 12일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주요 정당 정책위의장, 지역 국회의원을 만나, 전북도와 시군이 공동 발간한 공약안(8개분야 48건), 특히 전북현안과 관련된 사업들에 대해 대선 공약화 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계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1998년 구성돼 친선교류, 민간단체의 협력사업 지원 등 영호남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안재용 기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들이 13일 대선후보에게 공약반영을 요구하는 공동건의안을 전달했다.

공동건의안에는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영호남 발전을 위한 내용이 담겼으며, 특히 건의안에는 대구~무주 고속도,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전주~여수 고속철도 건설 등이 포함됐다.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에 따르면 8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대선공약 공동건의안을 결정,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5개 정당에 전달하고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선공약 공동 건의사항으로 채택한 안건은 8가지이다.

먼저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조속한 지방분권형 개헌 추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는 대구~무주 고속도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전주~여수 고속도로, 과도한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지방재정 여건악화로 실질적 지방자치구현 어려움과 재정분권 추진을 위해서 지방소비세 확대(11%→25%),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5%이상), 4대 기초복지 사업비 100% 국비지원(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부동산양도소득세 및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이양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 지역혁신도시 이전기업 법인세 50% 지방세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국가차원의 대책 마련을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남해안 고속철도화 사업, 대구~광주 내륙철도 건설, 경전선(광주송정~순천) 전기간 전철화 사업, 김해신공항연결 광역철도망 건설, 대구~무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전라선(전주~여수) 고속철도 건설, 김천



군산시의회는 13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발주 선박물량의 군산조선소 배정과 선박편도 지역 안배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 발주 선박물량, 군산조선소에도 배정해야”

군산시의회는 13일 군산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발주 선박물량의 군산조선소 배정과 선박편도 지역 안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30만톤급 도크와 세계 최대 규모인 1,650톤급 콜라이트 크레인 등을 갖춘 군산조선소와 협력업체 5,500여명의 근로자는 매출 1조2,000억원을 올리며 지역 경제의 24%를 차지했으나 수주물량 감소로 급변 6월 가동중단의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박편도를 지원받아 발주하는 현대상선의 초대형 유조선 10척에 대한 입찰에서 부실 규모가 큰 대우조선해양이 업체로 선정된 것은 그동안 건설하게 운영되어 온 군산조선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으로 국가적 지역 차별이며 군산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

군산시의회 “선박편도 지역 안배해야” 촉구

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KDB산업은행은 현대상선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 선박 건조 업체의 선정 발표가 있기도 전에 이등급 KDB산업은행이 중앙일간지와 인터뷰에서 “현대상선 10척 물량중 1조원 정도가 대우조선해양에 배정될 것”이라고 밝힌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식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히 “정부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인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공적자금도 지원하고 이번 신조선물량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역 협력성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특혜”라고 비난했다.

이와함께 시의회는 “국민연금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 중단 입장을 밝혔다”며 “오는 7월 확정되는 현대상선 유조선 본 계약전에 재검토를 통해 형평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월 가동중단의 위기에 직면한 군산조선소를 살리기 위해 정부에 이등급 KDB산업은행이 1조6천억원 규모에 대한 선박 건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동신 군산시장과 박정희 의장은 13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당사를 방문해 대선 주자들에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한 전북도민의 뜻을 전달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4.12 재보선 전북민심 ‘냉담’

도의회 전주 4, 18.65%로 낮은 투표율 대표성 논란

5월 9일에 치러질 총선대선의 민심 풍향계를 짚칠 수 있었던 보궐선거가 최악의 투표율을 보이며 여전히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12 보궐선거를 통해 대선에서 주도권 선점을 노렸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투표 결과를 놓고 당황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12일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 광역의원 전주시 제4선거구에서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가 무소속 김이재 후보를 15%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전북도의원 보궐선거는 표면상 국민의당 후보가 무소속 후보와 경합을 벌이는 모습이었으나 무소속 김이재 후보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후보였다.

민주당은 이번 도의원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후보를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도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2018년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번 선거에 출진했다.

후보 등록 며칠 전까지 당직을 맡았던 김이재 후보가 탈당을 하고 무



최명철 당선인



임귀현 당선인

소속으로 나선 것이다.
김이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함께 한 대형 현수막을 걸고 인쇄물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표

심을 공략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뽀수공천’이라는 비난이 일었고 국민의당에서도 이를 놓치지 않고 선거운동 기간 내내 쟁점으로 삼았다.

결과는 국민의당 최명철 후보가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예상외로 낮은 투표율에 국민의당으로서 마냥 기뻐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전체 3만3588명의 선거인수 가운데 6241명이 참여해 18.6%에 그쳤다.

최명철 후보가 얻은 득표율(57%)은 전체 선거인수로 환산하면 9.4%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전북 정치의 1번지’라고 하는 전주시제4선거구의 민심이 국민의당으로 돌아섰다고 내놓기가 멋쩍게 된 것이다.

한편 기초의원 완주리선거구에서는 무소속의 임귀현 후보가 민주당 김정환 후보와 국민의당 김희초 후보를 각각 2표, 3표 차이로 따돌리고 승리했다. /안재용 기자

임은정 검사 “검찰, 우병우와 공범… 특검 자청하자”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임은정 검사(사진)는 지난 12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올린 ‘국정농단의 조력자인 우리 검찰의 자성을 촉구하며’라는 글을 통해 “존립 근거인 국민 신뢰를 붕괴케 한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병우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는 뉴스를 자정 무렵 접했다”며 “우병우의 공범인 우리가

우리의 치부를 가진 채 우병우만을 도려낼 수 있을까”라고 적었다.

이어 “부실 수사를 초래한 검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관리방해 의혹 수사 대상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등 검사장급 이상의 고위직”이라며 “이런 수사 대상이 현직에 있는 한 관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도 없고, 그러한 수사 결과에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우리 수사 결과는 재판 결과와도, 사실과도 사뭇 달랐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오히려 인사로 보답 받았다”며 “정윤희 문건 수사 등 부실 수사에 대한 특검을 자청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뉴스

“토·일요일 신문 읽는다.”

ECO융합섬유연구원

2017년 4~6월 복합섬유소재관련 기업 재직자 교육

“에코융합섬유연구원(Korea Institute of Convergence Textile)은 섬유패션산업의 기술혁신과 소재개발을 선도하여 미래를 준비해가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입니다.”

기술개발 및 사업분석

- 시제품 생산
- 기술, 정보제공
- 디자인

연구원 주요 사업

전문인력 양성

- 창업기업지원
- 지식재산권
- 연구용역 수행

CEO 및 재직자 교육 안내	
일시	기술역량강화세미나 : 재직자 대상
4월 18일	하이브리드 복합 섬유소재 염가공 기술동향
5월 2일	3D프린팅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 방안
일시	생산/연구장비 활용 실습교육 : 재직자 대상
4월 19일 ~ 21일	화학적 분석장비(SEM-EDX, GC/MS 등)
5월 17일 ~ 19일	물리적 분석장비(균제도, 태, 인장강도, SEM 등)
일시	기업기술경영 역량강화교육 : CEO 및 관리자 대상
4월 25일 ~ 26일	글로벌 시장 대응형 경영혁신
5월 23일 ~ 24일	섬유제품 생산관리

※ 상기 교육은 기업상황에 따라 상세 일정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교육문의 및 신청 : Tel. (063) 830 - 3579 E-mail : sulhwa9280@kictex.re.kr

[54888] 전라북도 익산시 석왕동 639번지 (서동로 594)
Tel. (063) 830 - 3576 Fax. (063) 830-3540 www.kictex.re.kr